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

-독일 드레스덴, 오스트리아 그라츠-

이 충 훈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럽의 고도경관정책 및 개선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10월, 열흘간의 일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유럽 역사도시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발전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시 조성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공주시의 고도경관기준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드레스덴

1) 도시 개요

독일 남동쪽에 엘베강을 끼고 형성된 작센주(州)의 주도(州都) 드레스덴(Dresden)은 “백탑의 도시”로 불렸으며, 중세에는 엘베강의 수로를 이용한 상업도시로서 발전하였고, 16세기 이후에는 작센의 수도로서 번영하였다. 작센주는 새로이 연방공화국에 편입된 주들 중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가장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독일 통일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옛 동독지역에 속한 드레스덴은 츠빙거궁전 등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널려 있어 ‘독일의 피렌체’로 불리고 있다. 한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으나 2009년 6월 엘베계곡에 다리를 새로 만들었다가 ‘문화유산’으로서는 처음으로 등재가 취소됐다.

드레스덴의 구시가와 신시가지 사이를 흐르고 있는 엘베강은 체코와 독일 접경지역의 보헤미아 산악지방에서 발원한 블타바강(독일어 몰다우강)과 체코 프라하 북쪽 30km 지점에서 만난다.

2) 도시의 역사적 측면

드레스덴은 독일의 교통, 공업중심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유적지들을 비롯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이후 동독의 산업중심지로 재편되어 화학, 기계 등 연구기능과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사회주의 경기침체가 이어져 불품없는 도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통일이후에 드레스덴은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유적들을 본격적으로 복원하고, 유수의 연구소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산학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3) 도시 경관적 측면

드레스덴은 두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쪽은 구시가지(Altstadt)이며 다른 영역은 신시가지(Neustadt)라고 부른다. 보통의 유서 깊은 도시들은 대부분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 두 영역으로 나뉘는데, 도시의 중심지는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면 모두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건물의 배열 등이 무계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들이나 행사 참가자들이 중앙역을 시작으로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분위기를 체험하도록 도시 전체를 설계 해놓았다는 점이다.

드레스덴은 문화유적과 문화 시설 등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비단 드레스덴의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 대부분의 대도시들에게 보이는 특징이다. 독일의 시가지들은 이전의 문화유산을 무시하고 다른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유산을 중심으로 두고 뻗어나가기 때문이다. 엘베 계곡의 주변 역시 엘베 강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 중심부가 어우러져 있으며, 자연이 손실되지 않으면서 도시의 환경에 잘 어우러져 있다.

드레스덴의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는 엘베 강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으며, 문화궁전(Kulturpalast), 켐퍼오페라(Semperoper), 츠빙거 궁전(Zwinger), 프라우엔교회(Frauenkirche) 등의 주요 시설은 구 시가지에 몰려있다. 전쟁 후 복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방정부는 30년 전만 해도 논밭이던 구시가의 주변부 땅까지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문화도시 건설에 들어갔다. 복원작업에는 시민들과 주정부, 지방정부 및 사설문화단체들이 손을 뻗었고, 2006년 하반기부터 차차 드레스덴은 옛 모습과 잘 조화된 지금의 경관을 갖추게 되었다.

도시 내부에는 중세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인 츠빙거 궁전, 프라우엔교회 등의 유서깊은 건축물들도 잘 보존되어 있고, 그 가운데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현대식 건물들도 제자리를 잡고 있다. 드레스덴의 엘베강 지역은 경관이 아름다워 “엘베강의 베네치아”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수한 자연경관도 있지만,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중세 문화유산이 상당부분 남아있다.



<그림 1> 엘베강변



<그림 2> 엘베강 교량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18~19세기의 경관적 요소들을 보존하고 있는 유산으로 엘베강변을 따라 약 18km에 이른다. 유산 지역 내에는 필니츠 궁을 비롯해 16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드레스덴 시의 다양한 유산들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엘베강의 현대적 다리 건설 등을 이유로 4년간 보존에 관한 논의가 지속됐으나, 다리 건설이 강행돼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드레스덴 도시개발국 담당자 면담

- 드레스덴시의 주거공간 개선에 있어서는 공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객과 주민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도시중심부에 거주공간을 배려하여 숙박과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드레스덴시에서는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포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날짜마다 테마를 달리하여 지정된 분야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이 제안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보함으로서 신뢰감을 주고 있다.
- 시에서는 이러한 인포박스 제도를 통하여 시민에게 만남의 공간과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부여하고 있다.
- 드레스덴 도심 건축물의 층고제한은 기존의 바로크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건물의 창문과 외관색채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협의과정을 거치며 도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유지하면 높이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이나 건물 개구부 높이는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규제적용범위는 시내 중심지를 대상지로 하되 적용방법은 외곽으로 확대하면서 점차 변화를 주며, 구시가지의 옛건축물과 현대적 건축물의 조화로운 구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은 남겨야 할 것인지 또는 전부 새롭게 지어야 할 것인지를 주민과 협의한 후 결정하고 설계 완성 후에는 세밀하게 검토후 진행하고 있다.



<그림 3> 현장사무실 방문 면담



<그림 4> 인포박스

4) 도시 문화 · 관광적 측면

독일 바로크 문화의 집산지, 17세기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Friedrich August)의 총애를 받은 예술과 문화의 도시. 독일과 폴란드, 체코의 사이에 위치한 작센의 수도 드레스덴(Dresden)의 주요 산업은 IT와 문화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세기를 거듭해 온 문화유산들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문화 재건이 균형을 이루어 빚어 낸 문화산업은 드레스덴을 독일의 중요한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드레스덴은 예술 및 음악의 도시로도 유명하며, 드레스덴 국립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0개 미술관에 꼽힐 정도이며, 많은 예술가들이 도시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드레스덴은 역사적인 건물보전과 다양한 관광요소 창출에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도시 드레스덴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산업과 문화가 골고루 발달한 뮌헨,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들, 국제 박람회 등으로 주목 받는 프랑크푸르트 등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드레스덴은 서독 지배하의 다른 대도시들과는 달리 동독 시절의 폐쇄되고 획일화된 문화산업의 영향으로 문화적인 발전이 미비하거나 거의 없었다.

대부분 독일의 고성들은 현대로 오면서 호텔 등으로 개조되거나 관광화 시키는데, 알브레차트베르그(Albrechtsberg)의 경우 이 단체가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관람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문화공연에는 모던한 콘서트나 국제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나 유네스코(UNESCO) 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엘베 계곡(Elbtal)에 속한 알브레차트베르그성은 중세의 분위기에 맞춘 클래식 공연과 콘서트를 위주로 공연이 이루어진다.



<그림 5> 필니츠 궁



<그림 6> 알브레차트부르크 성

5) 도시 재생 측면

주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독일의 기본적인 문화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엘베탈의 경우 주변에 쾰퍼오페라(Semper Oper 음악공연 중심의 오페라 하우스), 원래 궁정의 연회장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 츠빙거 궁전(Zwinger Schloss 미술관) 등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건물을 개조하여 의미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문화시설들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6) 시사점

드레스덴을 방문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사실을 접하게 됨과 동시에 그것을 하나의 문화코드로 받아들인다. 황폐했던 도시의 모습을 잊지 않은 시민들이 재단들의 성금 모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직접 문화 공연을 즐겨주었던 것이 그들의 문화 도시 프로젝트에 가속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시전체가 복원공사에 들어갈 만큼 전쟁의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덴은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대적인 감각의 문화 도시를 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도시 설계에는 적극적이면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기존의 것과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그라츠

1) 도시 개요

그라츠시는 오스트리아 남동쪽 슈타이어마르크주의 주도이며, 1,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구 25만명의 중세 도시로, 반경 50km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남쪽으로는 슬로

베니아와 인접한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이다.

그라츠의 도시성격은 엄격함이라는 독일 문화권의 특징과, 개방성이라는 발칸 문화권의 특징을 모두 지닌 도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양면성은 그라츠를 이해하는 코드가 됨. 도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무르강을 경계로 강 양안의 공간구조가 상이하고 사회·경제적인 불균형 현상이 빚어진 것은 그라츠가 지닌 양면성의 부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통과 모더니티, 혹은 개발과 보존처럼 함께하기 힘든 양면적 가치들이 공존하는 것은 이 도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그라츠는 '2003년 유럽연합이 선정한 유럽 문화의 수도(Cultural Capital of Europe 003)'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도시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매력은 잠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그라츠가 유럽 문화 수도라는 새 이름을 내걸고 그라츠2003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도 바로 보수적이고 조용한 고도를 활기차고 박동하는 문화 도시로 재탄생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도심을 가로 질러 흐르고 있는 무어강(Mur River)을 끼고 오른쪽으로 발달해 있는 도심 구역 곳곳에는 슬로스베르크 글로켄투름 시계탑, 카톨릭 고성당들, 요하네움 도립도서관, 시청 고건물, 그라츠 오페라하우스, 극장, 근현대 미술관 및 전시장 등이 자리해 있다.

수도 빈의 도시 계획을 본 딴 원형 대로(ring boulevard)가 옛 고도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시립 공원과 그라츠 대학 캠퍼스가 그 주변에 펼쳐져 있다.



<그림 7> 그라츠 시청앞 광장



<그림 8> 그라츠 가로경관

2) 도시의 역사적 측면

그라츠는 수세기 동안 합스부르크 통치하에 있었던 중부유럽의 한 주요 도시의 살아있는 전통을 나타내는 훌륭한 사례이다. 이 오래된 도시는 중세부터 이어져온 다양한 건축 양식과 예술 사조 및 주변 지역의 문화적 영향이 혼합되어 이룬 결정체이다.

그라츠 역사 지구는 독일, 발칸 반도, 지중해가 교차하는 곳이라는 위치 때문에 다양한 예술과 건축 사조의 영향을 반영한다. 서로 다른 여러 지역 출신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은 이

곳에서 자신들을 강력하게 표현하였고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역사적으로 동쪽으로부터는 서부 유럽으로 진입을 노리던 터키 오토만 제국으로 부터의 방패막 역할을 했고, 20세기 냉전기에는 서유럽 자본주의 세계와 과거 공산주의 세계 사이에서 동서 유럽 간의 중간 통로 겸 양 세계 간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3) 도시 경관적 측면

그라츠 역사 지구를 형성하는 도시 경관은 여러 시대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통합된 탁월한 사례이다. 각 시대의 특징이 그 시대의 전형적인 건축물로 그리고 흔히 걸작으로 나타나며, 이 도시의 역사적 발전이 도시의 겉모습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무르강 동쪽의 그라츠 구도심은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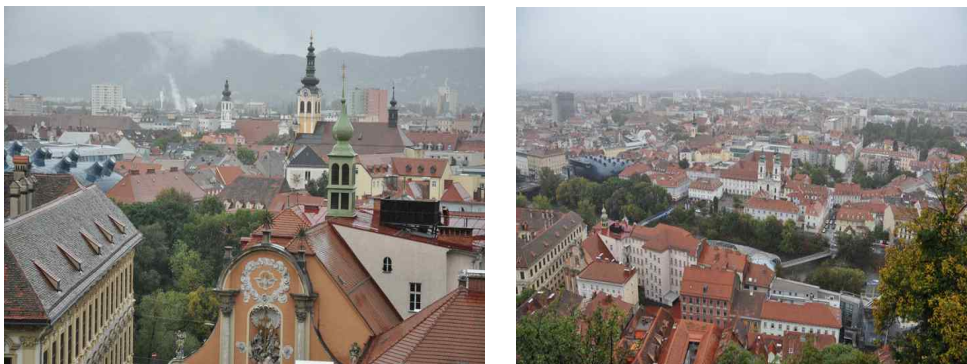
솔로스베르크 언덕을 중심으로 구릉을 따라 상점가가 줄지어 있고 평지로 내려오면 시청, 성당,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시가 전개되어 있다. 솔로베르크산 시계탑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구도심의 부감경관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며, 도시건물의 지붕은 박공형태로서 주황색으로 통일성을 유지하여 고풍스러운 중세도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구도심은 르네상스 양식의 엄격한 형식미가 인상적인 예수회수도원, 바로크 양식의 지붕과 외벽의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가 잘 어울리는 상가 건물, 탈르네상스 건축양식인 매너리즘 양식의 페르디난드 2세 유해안치소 등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V자를 거꾸로 한 모양으로 꺾인 붉은 지붕들이 잇대어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라츠시의 구도심 보존 정책은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건물 증개축 때 주위의 역사적 건물보다 층고를 높이 올리면 안 되고, 증개축을 위해서는 슈타이어마르크주, 그라츠시 등 4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도록 되어 있다.

"창문 하나만 새로 내려 해도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구도심 개발정책의 핵심은 도시의 '퀄리티' 유지에 있으며, "오래된 건물들 사이의 조화를 깨지 않는 것이 바로 그라츠 도시의 퀄리티"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 그라츠 시내 부감경관

그라츠에서 구도심 보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70년대초, 당시 시장이 '친 자동차 정책'을 내세워 구도심의 중심 도로이자 보행자도로였던 헤렌 거리를 왕복 4차선의 자동차도로로 만들고, 시 외곽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언론과 시민들은 '그라츠 구도심 보존운동'으로 점차 보행자 우선 정책, 역사유산 보존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의 힘을 받았다.

이후 시 당국은 주차장은 지하로 옮기고, 주차장으로 쓰이던 카르메리터 광장에 조경수와 분수를 설치해 시민휴식공간으로 바꾸었으며, 헤렌거리에는 자동차 진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림 10> 카르메리터광장 휴식공간



<그림 11> 자전거 거치대

4) 도시 관광적 측면

그라츠 탐방의 시작은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기도 한 '시청사(TownHall)'가 위치한 광장에서 시작된다.

이 건물 광장은 노점상들이 들어서 광장의 표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으며, 광장 주변으로는 그라츠 전역에서 출발한 전차들이 지나다니며, 전차들은 그라츠의 풍경을 낭만적으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유겐트 양식까지 중세부터 지금까지 온갖 건축양식을 모아놓은 듯한 도시는 다양한 색채로 나타나며, 특히 16세기 건축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구시가는 오래된 역사도시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은 각종 쇼핑 상점과 레스토랑, 바 등이 있으며, 광장은 관광뿐만 아니라 그라츠 시민들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각종 볼거리는 시청사를 중심으로 주변에 모여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 곳곳의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큰 시계들이다. '시계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시계는 그라츠를 상징하는 랜드마크(Landmark)역할을 한다.

랜드하우스(Landhaus)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업적으로서 16세기 이탈리아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이곳은 아치형 기둥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라츠에는 500~600년된 건물들이 혼한 도시로, 건립 연도는 건물 입구 옆에 써 있는 숫자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건립된 지 800년된 역사의 호텔과 오페라하우스, 대학과 박물관 등이 남아있다.



<그림 12> 버스쉘터



<그림 13> 그라츠 시청

5) 도시 재생 측면

2003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문화 수도로 그라츠를 지정하고, 문화 시설이 빈약한 서쪽 강변을 문화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무어강으로 양분된 그라츠를 융화시킬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그라츠는 전통적인 주변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로서 독특한 디자인의 미술관이 강 양편에 사는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어강 양편에는 계층적으로 양분되어 있었으며, 중세 유적이 잘 보존된 동쪽 구시가지에는 중산층이 살고 있었고, 이와 반대로 뒤늦게 개발된 서편은 동구권 이민자들과 저소득층이 자리를 잡았다.

이로 인해 강 서쪽은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문화시설들은 대부분 동쪽에 몰려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인공 섬 ‘무어인셀 Murinsel’이 조성 되었다. 무어강에 놓인 길이 46.6m의 보행교인 ‘문화의 다리’는 그라츠 출신 미술전문 기획자인 로버트 푼켄호퍼와 뉴욕 출신 건축가 비토 아콘치의 예술적 상상력은 이 다리를 통해 강 양편의 충돌을 ‘화합’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강물의 소용돌이를 형상화한 듯한 무어인셀은 무어강의 구시가지와 신시가를 다리로 잇고 있으며, 강수량에 따라 배처럼 뜨고 가라앉도록 설계되었다.

그라츠는 문화를 통한 도시 개조와 계층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무어 강을 적극이용하고, 강 양편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우선 빈곤층 밀집 지역인 무어 강서쪽지역이 예술로 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한 ‘아트존’으로 설정했다. 그 중심에는 2004년 9월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된 쿤스트하우스가 있다.

2003년 쿤스트하우스가 완공된 후 색다른 재질과 디자인, 걸으로는 현대의 첨단기술만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바로 앞에 놓인 유리벽에 그대로 투영된 구시가지의 모습으로 그라츠의 역사와 유산을 함께 담아내고 있으며, 천장에 나 있는 축수는 과거의 랜드마크였던 슬로스베르크의 시계탑을 향하고 있다. 또한 23개의 안테나를 통해 그라츠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 쿤스트하우스



<그림 15> 무어인셀(Murinsel)

그라츠시는 서쪽 지역에 '라이닝하우스 프로젝트'라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1980년대 중반 문을 닫은 채 방치되었던 50만 m^2 규모의 맥주공장 부지를 사들여 대표적인 도시재생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이다.

20년 이상에 걸쳐 전통의 구도심과는 차별되는 현대적 시가지를 꾸미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로 1억 1,000만유로(약 1,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다.

그라츠 시는 "도시의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전통과 모더니티라는 각자의 정체성을 가꿔가도록" 계획을 추진 중이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갈등과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 시사점

지역사회는 문화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문화사회의 구조는 지역사회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무어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가 예술로 화합해가는 그라츠의 예를 들어 보면 문화사회(예술)가 지역사회를 바꿔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시 건축 디자인 한 개가 주변의 도시 공간을 문화지대로 바꿔놓은 도시 개조의 성공 사례로서, 그라츠 시는 또 계층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강을 활용했다. 무어 강 서쪽 빈 곤 지역과 동쪽 부유층 거주 지역의 소통을 위해 강 중앙에 인공섬을 건립하고, 보행교를 설치해 양쪽에서 걸어서 올 수 있게 했다. 강 양편의 이질성을 화합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